

현장연구

## 갈옷의 제작방법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박순자 · 박덕자\*

덕성여자대학교 교양학부 · 제주도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계\*

### A Study on the Constructing and Designing Method of the Gal Ot

Park, Sun-Ja · Park, Duk-Ja\*

Division of Liberal Art Duksung Women's Univ.

Cheju Provincia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and the use of the Gal Ot which has been called Cheju-Do's folk costume.

The Gal-Ot has been mainly used the traditional clothes which the farmers have worn during working in the fields. In this study, We firstly developed the dyeing methods used the immature persimmon juice and dyed the dress and fabrics. We secondly designed the diverse Gal-Ot which we can wear for the everyday dress, that is, men's and women's upper and lower clothes and reformed another Korean Style's Dresses and children's one-piece.

This study strongly suggested that the Gal-Ot would be used for the everyday wear and the street wear for adults and children and that the improvement of dyeing method used the immature persimmon would be expanded the use of the Gal Fabrics.

**Key words** : Gal-Ot, Constructing and dyeing method, design, reformed Korean Style's dress.

### I. 서 론

제주도민이 오랫동안 주로 勞動服으로 着用해 온 갈옷은 합성섬유의 개발, 발전으로 着用도가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천연섬유 및 천연 염료에의 관심 증대와 패션계에 복고풍의 등장으로 점차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갈옷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民俗服으로 전승되어 도민 대다수가 着用해 온 服飾으로 갈옷에 대한 연구는 民俗服飾學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갈옷에 관한 연구보고로는 주로 갈옷의 전통적인 제작법과 物性에 관한 것이

었다. 高(1971, 1973)는 전래되는 갈옷의 제작방법과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玄(1976)은 實物중심으로 형태 및 치수를 측정하고 제도법 및 바느질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金(1991)은 갈옷을 牧者服의 一種으로 다루어 갈적삼과 갈중이를 실측하여 제시하였다. 梁(1975)은 감즙염색을 한 깃팡목의 物性을 조사, 측정하였으며, 孫(1987)은 갈옷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로 갈옷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아내고 장단점을 밝혔다. 李(1991, 1994)는 종래 면직물에 국한된 감즙염색을 綿織物, 絹織物, 人絹織物, 나일론織物로 확대하여 物性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갈옷의 종류 및

형태, 제작방법, 갈옷에 대한 의식구조, 물리적 성질 등에 대해서 연구 규명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갈옷은 주로 노동복으로 착용되어져 왔었고, 갈옷의 용도를 확대하여 실생활에 이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갈옷의 이용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현대감각에 맞는 갈옷을 제작하여 실용화시키고 색상과 착용감이 더 좋은 갈옷을 개발하기 위한 제1보로서 갈옷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제작법을 연구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試料布 제작

6가지 직물로 면섬유(광목, 옥양목, 소창), 마섬유(삼베, 모시) 및 polyester 섬유(테트론)를 사용하였고, 그 특징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소창은 개량한복의 소재로 사용하였고, 무명, 광목, 옥양목은 개량한복을 제외한 의복감으로 남·녀 성인용 上下衣, 아동용 원피스감으로, 삼베는 조끼, 통치마, 남자용 남방셔츠, 반바지감으로 사용하였다. 모시는 염색을 하지 않고 의복을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그 자체색이 더 곱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다가 어느 정도 남아졌을 때 감즙 염색을 하면 새것처럼 뽀뽀해져 세탁후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실험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염색을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테트론은 재활용 남방 셔츠용으로 사용하였다.

각 의복 제작에 사용된 옷감의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 ① 성인여자용 조끼 : 삼베 35cm폭 2.7마
- ② 개량반소매 적삼 : 광목 80cm폭 1마, 삼베 80cm폭 3.5마
- ③ 여자용 반바지 : 광목 80cm폭 3.5마
- ④ 여자용 짧은 기모노소매 적삼 : 광목 80cm폭 1.4마, 삼베 35cm폭 2.4마
- ⑤ 여자용 통치마(개더 스커트) : 삼베 35cm폭 4마
- ④ 여자용 두름치마(랩스커트) : 광목 80cm폭 8마, 삼베 35cm폭 5.8마

- ⑦ 남자용 남방 셔츠 : 삼베 35cm폭 5마
- ⑧ 남자용 반바지 : 삼베 35cm폭 3.5마
- ⑨ 여아용 원피스 : 옥양목 120cm폭 1.2마
- ⑩ 개량 한복
  - a : 여자용
    - 저고리 : 소창 100cm폭 7.7마
    - 치 마 : 소창 100cm폭 6마
    - 장식용으로 덧대는 감 : 염색된 마 35cm폭 1.4마
  - b : 남자용
    - 저고리 : 소창 100cm폭 2.3마
    - 바 지 : 소창 100cm폭 2.2마
    - 장식용으로 덧대는 감 : 염색된 마 35cm폭 1.2마

표 1. 직물의 특성

직물명	재 질	조직	두께(mm)	밀도(inch) 가로×세로
A	면 100%	평직	0.386	58×59
B	면 100%	평직	0.297	51×48
C	면 100%	평직	0.362	49×35
D	마 100%	평직	0.388	55×26
E	마 100%	평직	0.276	54×50
F	폴리에스테르 100%	평직	0.335	70×63

A : 광목 B : 옥양목 C : 소창 D : 삼베 E : 모시  
F : 테트론

### 2. 감물(염색원료)제작과 염색법

감은 제주도 제주시 동회천 마을에서 토종감(직경 3~4cm)을 수집하여 두꺼운 천은 옷 한장에 감 1되 정도의 양으로 하고 얇은 천은 그보다 적은 양으로 염색하였다. 감물 염색은 전문가(북제주 애월 73歲, 金氏)에게서 전수받았다.

감즙 염색 방법으로는 옷을 제작한 후에 염색하는 방법과 原布에 염색하는 2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개량한복을 제외한 모든 옷과 소품은 제작한 후에 염색하였고, 소창을 이용한 개량한복은 原布를 염색한 후에 의복을 제작하였다. 염색할 때도 옷을

만들어 염색한 경우는 감을 으갠 것에 직접 염색하였고, 原布를 염색할 때는 감즙을 내어 염색하였다. 감의 농도는 모든 직물에 같은 농도로 감 2.5kg에 물 50g으로 50 : 1의 비율로 하였다. 이미 제작된 옷을 염색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 염색법은 전통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독자적인 수정을 가한 것으로 선행연구(高, 1971 : 孫, 1987, 1989)들과 상이한 점만을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① 풋감은 염색할 당일 아침에 따서 쓰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나 본 연구에서는 날씨 관계로 1주일 동안 저온 저장(4℃) 한 후 사용하였다. 그러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감의 꼭지를 떼어내고 반으로 쪼갠 후 분쇄기에 넣어 으갠다. 재래식 방법은 남도구리에서 감을 으개어 즙을 냈으나 분쇄기를 사용한 것과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高, 1993)에 의하여 본 研究에서는 분쇄기를 사용하였다.

② 염색하고자 하는 옷이나 옷감에 으갠 감이 골고루 가도록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돌돌 말아준 다음 차곡차곡 놓은 후 감즙이 우러나올 때까지 10분 정도 밟아주고, 풋감 찌꺼기의 고형분을 굵은 솔로 털어낸다.

③ 건조시킬때 빨랫줄이 아닌 막대에 꿰거나, 평평한 곳에 너는 방법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잔디 위에 널어 가끔 앞뒤를 뒤집어 주면서 오후 4시 정도까지 바짝 건조시켰다.

④ 위의 건조된 옷을 물에 적셔 잔디 위에 널어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건조시키기를 10회 반복한다. 건조중의 색의 변화는 초기에 급격했으나 3~4일이 지나면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건조 반복회수는 7회 이상 1주일간 하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옷감(原布)을 염색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며, 건조시킬때는 주름이 지지 않도록 잘 펴서 잔디밭에 건조시키기를 반복한다.

### III. 연구 내용

전통적인 작업복으로서의 갈옷은 남녀 공통의 上衣인 갈적삼과 남자 下衣인 갈증이 여자 下衣인 갈증이, 갈몸빼가 있다. 이 전통적인 갈옷에 대하여서는 선행연구(玄, 1976 : 金, 1991 : 高, 1971 : 高, 1993)에서 충분히 소개되었으므로 본문에서는 생

략하고, 본문에서는 이것 이외에 새로 디자인한 갈옷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그 제작법을 제도·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봉제는 제도에 제시한대로 한복과 양복의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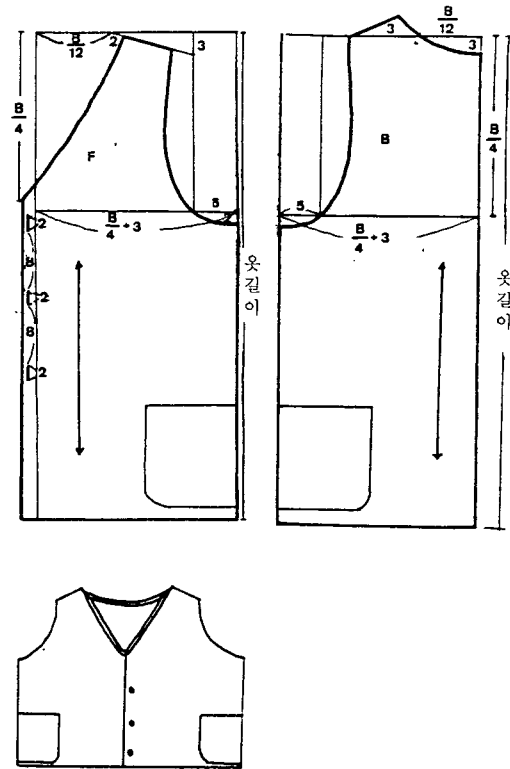
#### (1) 인체 측정

인체 측정법은 농촌 생활지도 편람(1992)에 의거하여 上衣는 어깨넓이, 가슴둘레, 옷길이, 下衣는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옷길이를 기본으로 측정하였다. 갈옷의 종류에 따라 측정항목과 측정치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각 衣服에 필요한 인체 측정치

품 목	성 별	계 측 항 목	계 측 치 (cm)
조 끼	성인여자	가슴둘레(B)	92
		어깨넓이	37
		옷길이	50
통 치 마	성인여자	허리둘레(W)	80
		엉덩이둘레(H)	99
		치마길이	62
개량반소매적삼	성인여자	가슴둘레(B)	92
		등길이	50
		화장	47
반 바 지	성인여자	허리둘레(W)	74
		엉덩이둘레(H)	100
		밑위 길이	27
짧은 기모노 소 매 적 삼	성인여자	바지 길이	50
		가슴둘레(B)	92
		등길이	50
두름치마	성인여자	어깨길이	37
		화장	47
		허리둘레(W)	80
남방셔츠 (반소매)	성인남자	엉덩이둘레(H)	99
		치마 길이	77
		가슴둘레	100
반 바 지	성인남자	옷길이	70
		소매 길이	25
		허리둘레(W)	83
반 바 지	성인남자	엉덩이둘레(H)	100
		밑위 길이	27
		바지 길이	52

품 목	성 별	계 측 항목	계 측치(cm)
원피스	여 아	가슴둘레(B)	68
		등길이	27
		어깨 넓이	30
		암홀(AH)	21
		허리둘레	58
		원피스길이	50
개량한복	성인여자	가슴둘레(B)	92
		등길이	50
		소매길이	50
		화장	70
		허리둘레	80
		치마길이	80
개량한복	성인남자	가슴둘레(B)	100
		옷길이	70
		허리둘레(W)	83
		영덩이둘레(W)	100
		밑위 길이	27
		바지길이	85



〈그림 1〉 성인 여자용 조끼의 제도와 도식화

(2) 작품 제작 방법

갈옷의 제도(1/5 축소) 및 도식화(1/10 축소)를 항목별로 제시하였는데, 각 옷의 봉제는 제시한 제도법에 의거하였다. 모든 갈옷은 안감을 넣지 않고 흘감으로 제작하였다.

1) 평상복

i) 성인 여자용

a. 조끼

삼베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1에 제시한 제도에 의해 제작하였다.

b. 통치마(개더 스커트)

삼베를 사용하였고 그림 2에 제시한 제도에 의해 제작하였다.

c. 개량 반소매적삼

광목, 삼베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3의 제도에 따라 제작하였다.

d. 반바지

광목, 삼베를 사용하였고 그림 4에 제시한 제도에 의해 제작하였다.

e. 짧은 기모노 소매 적삼

광목, 삼베를 사용하여 그림 5의 제도에 따라 제작하였다.

f. 두름치마(랩스커트)

광목, 삼베를 사용하여 그림 6의 제도에 따라 제작하였다.

ii) 성인 남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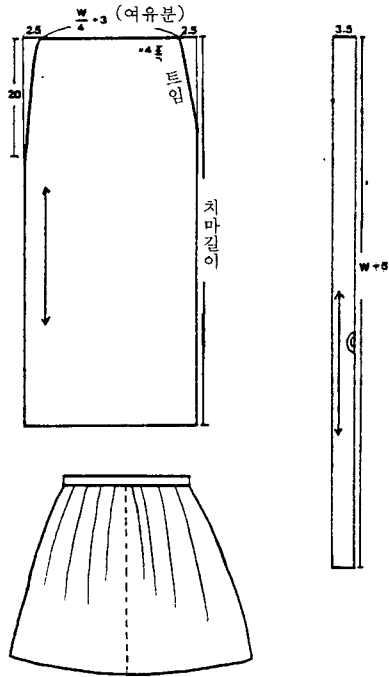
a. 남방셔츠

삼베를 사용하였고 그림 7에 제시한 제도에 의해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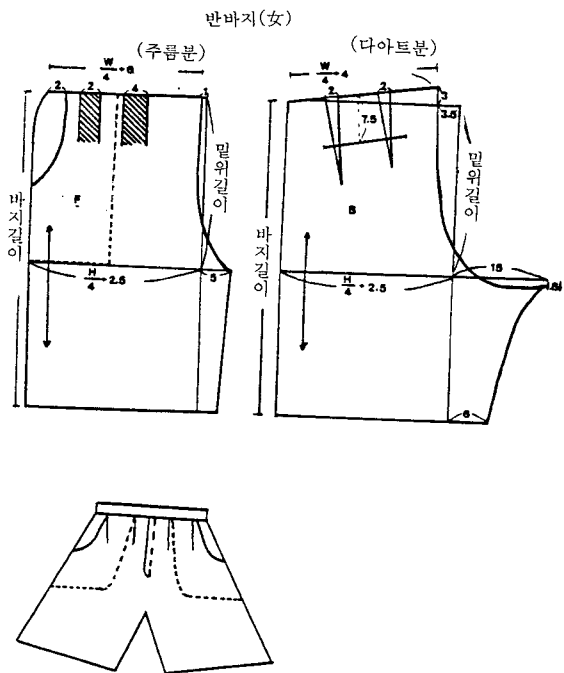
b. 반바지

삼베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8의 제도에 따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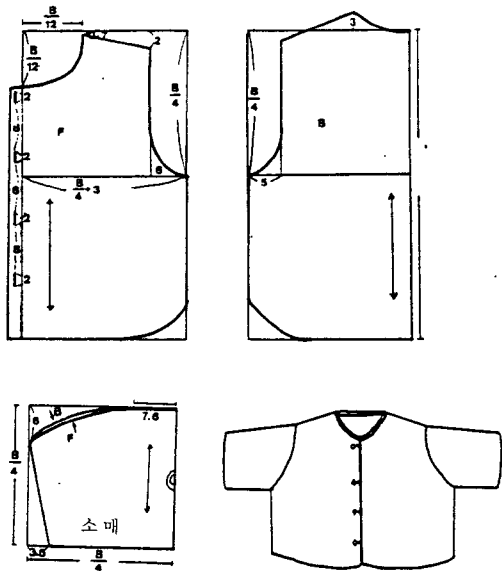
갈옷의 제작방법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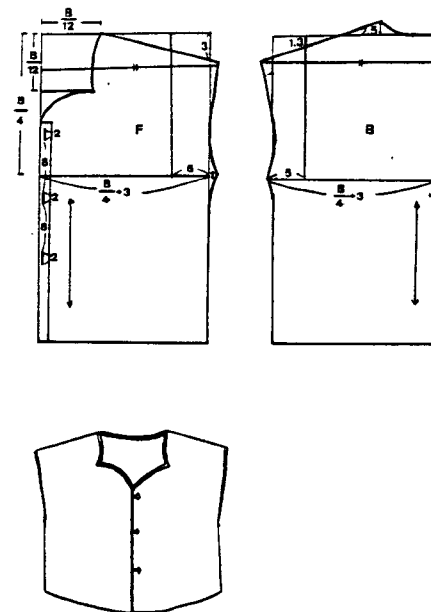
<그림 2> 성인 여자용 통치마의 제도과 도식화



<그림 4> 성인 여자용 반바지의 제도과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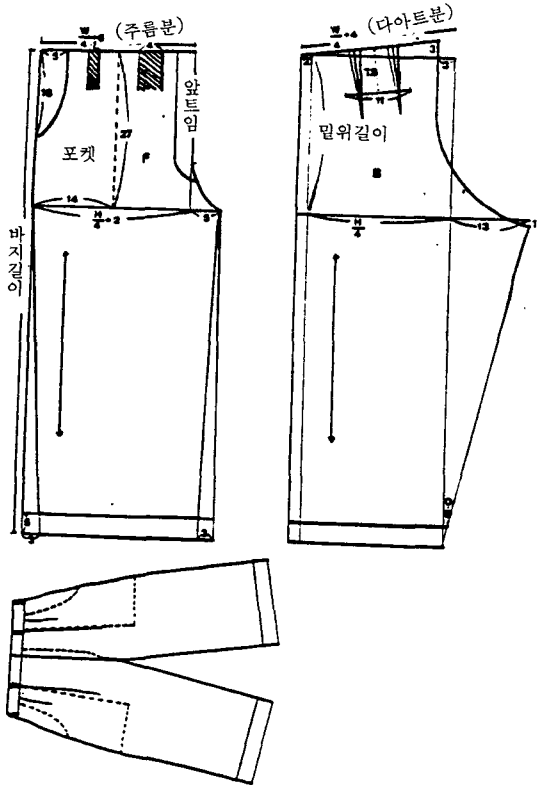
<그림 3> 성인 여자용 개량 반소매 적삼의 제도과 도식화



<그림 5> 성인 여자용 짧은 민소매 적삼의 제도과 도식화







〈그림 11-2〉 성인 남자용 개량한복 바지의 제도와 도식화

#### IV. 제언

갈옷의 장점(高, 1986 : 孫, 1986)은 감즙염색으로 인해 뽀뽀해지므로 세탁 후 물을 하거나 다림질 등 잔손질할 필요가 없다. 직사일광에서도 열이 전도되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므로 防暑用으로 유용하다. 비를 맞거나 땀이 나도 몸에 달라 붙지 않으며, 감즙이 방부제 역할을 하므로 땀이 묻은채 두어도 썩지 않아 매우 실용적이다. 또한 염색후에는 내구력이 2배 정도 강해지므로 경제적인 점등이다. 단점은 디자인, 색상이 한정되어 있고, 채색과정중에 날씨의 선택과 손질의 까다로움, 오래 입으면 퇴색되는 점 등이다. 그러므로 本研究는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의 연구 방향은 염색법에 있어서 한정된 색상을 좀

더 다양화하는 것 즉, 매염제, 후처리제 등의 화학약품을 이용한 색상의 조절에 관한 검토와 오래 입을수록 황갈색 또는 적갈색에서 흑갈색으로 퇴색되는 메카니즘을 규명하는데 있다.

先行 研究(孫, 1989)에서는 색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후처리법으로 백반을 사용하였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염색 후 2~3회의 세탁시에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세탁만 해야 하는 것도 변색을 막는 한 요령이다. 채색일자를 8일이상 채색처리하면 원하는 색상보다 너무 짙어진다는 보고(孫, 1989)도 있다.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염색을 개량하는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을 부가하여 염색법을 개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염료로도 풋감 뿐만 아니라 감나무 잎, 감나무 껍데기, 감나무 뿌리 등의 이용도 시도해 보았는데 감즙보다 색상이 좋지는 못했으나 천연의 색은 느낄 수 있었다는 보고(孫, 1987)도 있다. 건조시킬 때도 금속성 물질이 닿으면 닿은 부분의 변색 흔적이 남게 되므로 건조시키는 장소도 고려해야 한다.

풋감을 이용한 염색의 원리(北川, 1970 : 孫, 1987)는 풋감즙에 들어 있는 짧은 맛의 탄닌 성분이 섬유와 결합하여 응고되면 섬유를 뽀뽀하게 만들며 햇빛에 노출시키면 점진적으로 산화, 중합되면서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 이와 같은 發色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탄닌에 의한 발색은 자외선, 산소, 효소 등에 의해서 서서히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명확한 메카니즘이 밝혀지면 화학약품처리에 의해 염색처리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감즙 염색布의 대량생산도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감즙 염색을 하면 자외선 및 가시광선의 遮斷效果(李, 1994)가 있고 뽀뽀해지기 때문에 입었을 때 몸에 달라붙지 않아 對流에 의한 體熱放散을 촉진시켜주므로(李, 1991 : 李, 1994) 하절용 의복으로서 적합하여 新素材 의류 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부작용(李, 1991 : 李, 1994)이 있어 좀이나 벌레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등 개발하여 발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갈옷의 기성복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복에 감즙 염색한 것으로 전통적인 갈증



이, 적삼, 몸빼와 남방셔츠 등의 대·중·소 사이즈가 시판되고 있으며, 적삼 형태의 셔츠로 개량된 기성복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갈옷의 수요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근로자의 복장으로 주문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젊은이의 일상복으로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한복에 속하는 갈옷을 서구식 복식과 절충하여 디자인한다면 현대식 노동복뿐만 아니라 일상복, 외출복까지 용도를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감죽 염색방법의 과학화, 갈옷 형태의 현대화로 일상복 등 용도에 알맞는 디자인을 연구, 개발한다면 우리 전통의상을 계승하고 실용적인 衣裳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우리 것에 대한 의식도 재조명될 것이다.

## V. 요약

제주도민이 오랫동안 주로 勞動服으로 着用해 온 갈옷의 이용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현대 감각에 맞는 갈옷의 日常服과 외출복을 고안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감죽 염색으로 퇴색된 옷을 재활용하는 방법, 염색방법의 고찰, 감죽 염색에 있어서 재질의 적합성과 다양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활용 아동복과 소창을 이용한 개량한복에의 응용은 갈옷 이용 범위의 확대를 시사하였다. 앞으로 갈옷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염색법의 간소화와 후처리법의 개발에 연구의 중점을 두면서 갈옷의 장점을 이용하여 용도에 알맞는 디자인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한다면 우리 전통 의상인 갈옷을, 시대에 어울리는 실용적인 衣裳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玄惠景, 1976, 제주도 服飾에 관한 연구, -해녀복과 농민복(갈옷)의 實物을 중심으로-, 수도

- 師大 석사연구논문  
 金東旭, 高富子, 1973, 衣生活-農夫服(柿下衣類)-갈옷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주도편, pp. 225~227  
 金義淑, 1991, 제주도 牧者服 考察,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北川博敏, 1970, かきの栽培と利用, 養賢堂  
 高富子, 1971, 제주도 服飾의 民俗學的 연구, 梨大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제17책(衣生活), pp.340~341  
 高富子, 1986, 衣生活-제주지방의 衣生活,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17책(衣生活), pp.340~341.  
 高富子, 1993, 衣生活, 제주도誌 제3권, pp.764~766  
 경남진흥원편, 1992, 농촌생활개선편람, pp.15~31  
 李惠善, 1991, 제주도 갈옷의 유래 및 제작방법에 관한 연구, 제주대 논문집 33 : 165~174  
 李惠善, 1991, 감죽처리布的 物性에 관한 연구, 제주대 논문집 33 : 175~182  
 李惠善, 1994, 갈옷에 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孫敬子, 1987, 제주도 갈옷의 實態調査에 대한 응용 방안 연구, 석주선기념박물관지, pp.37~61  
 孫敬子, 1987, 감죽 농도에 따른 CELLULOSE 섬유 의 引長強度 및 色差 연구, 세종대 논문집 제14집, pp.23~34  
 孫敬子, 1988, 한국 전통 갈옷의 특성 연구, 복식학회지 12 : 109~111  
 孫敬子, 1989, 한국 전통 갈옷(澁柿染衣)의 특성 연구 II, 세종대 자연과학논문집, pp.9~32  
 梁南順, 1975, 제주도 농촌 勞動服의 物性에 관한 實驗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